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12.30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34.50원 (-5.80원)

KOSPI

4,220.56 (+90.88, +2.20%)

KOSDAQ

932.59 (+12.92, +1.40%)

국고채 10년 금리

3.354 (-0.020%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하나채권 성장률 컨센서스와 금리('14, '17, '26년) [박준우]

기업분석

삼양식품 단기 조정은 기회 [심은주]

LG이노텍 비모바일 영역 확대로 Set 우려 상쇄 [김민경]

대한항공 4Q25 Pre: 환율이 내려오면 대한항공을 보자 [안도현]

산업분석

유틸리티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유재선]

Monthly

2차전지 11월 ESS Battery : BTM 성장세 지속 [김현수]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KT, 대한항공, 금호석유화학, 풍산, 알테오젠, 현대무백스, 가온칩스

하나증권

2025년 12월 29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하나채권

성장을 컨센서스와 금리('14, '17, '26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수급, 환율 등으로 복잡해진 섹터. 결국은 '성장을 전망'이 금리의 큰 방향성을 결정
- 3년 금리는 인하나 인상으로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 기준금리 대비 40~50bp 박스권
- 인하 재개 시 2.5% ('14년 사례), 인상 전환 시 3.4% ('17년 사례). 지금은 전자에 무게

한국 국고채 3년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40bp대로 동결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환율 등 대외 변수의 변동성이 크고, 내년 WGBI 편입 및 정부보통채 발행 등 신규 수급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이에 금리 방향성을 전망하기 어려우나, 그만큼 큰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성장을 전망에 집중하는 것이다. 2026년도 각종 수급 요인이 시장 판단을 흐리게 만들 터인데, 내년 상반기 중 추경 리스크 정도를 제외하면 이미 시장에 반영됐거나 노이즈에 가까운 요인들이다.

내년 금리의 방향성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성장을 전망이 결정할 것이다. 실질 성장을 컨센서스가 큰 폭으로 변화하면 기준금리도 이에 따라 조정되고, 국고채 금리는 이를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도표 1]. 2022, 2023년은 예외적으로 성장을 급락에도 러-우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급등했으나,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실질 성장률에 후행하는 변수다. 글로벌 공급 충격이 재차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질 성장을 전망만 고려해도 충분하다.

성장을 전망의 상향 조정이 단기에 그칠지(=인하 재개), 아니면 꾸준히 지속될지(=인상 전환)에 대한 판단이 곧 중장기 금리 전망이다. 과거 사례로 각각 (1) 2013~2014년과 (2) 2016~2017년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사이클과 자세한 비교는 1월 월보에서 다를 예정).

(1) 2013년 5월 기준금리가 2.5%로 인하된 이후 추경 등으로 2013년 성장을 컨센서스 하락이 일단락됐다. 2014년 성장을 컨센서스는 3.6%로 2013년 2.5% 대비 1%p 이상 높아졌으나, 이는 기저효과 영향이 컸고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제한적이었다. 한국은행은 2014년 8월에 수출 호조에도 GDP갭 축소 속도가 완만한 점 등을 근거로 인하를 재개했다. 국고 3년 금리는 오랜 박스권(기준금리 대비 약 40bp) 끝에 인하가 단행되기 이전에 기준금리 2.50% 수준까지 하락했다 [도표 2].

(2)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낮춘 이후는 상당 기간 성장을 전망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후 2017년 2분기부터 수출과 내수 동반 호조로 2017년과 2018년 성장을 전망이 상향되기 시작했다. 두 해 모두 2.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고,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인상으로 전환했다. 국고 3년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40~50bp 수준을 유지하다가 인상 기대로 기준금리 대비 약 90bp까지 급등했다 [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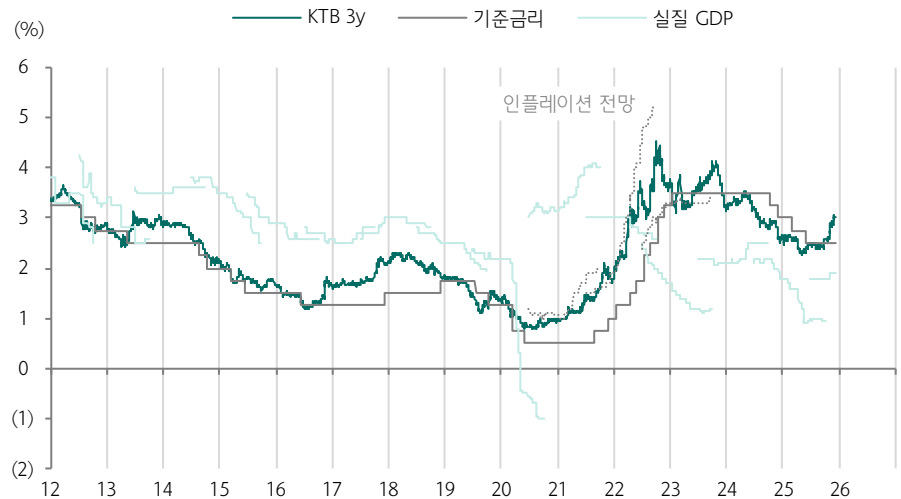
채권전략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현재 2025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일단락된 후 소폭 반등했고, 2026년 성장률 전망은 2025년보다 1%p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고 있고,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점 등은 2013년과 유사하다. 반면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성장률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2017년과 닮았다. 다음 기준금리 방향성이 인상과 인하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40bp대 (2.9~3.0%) 박스권이 예상된다. 다만 2분기 즈음 인하와 인상 중 정책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하면, 금리는 한쪽으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2014년과 같이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면 3년 금리는 현 기준금리 2.5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 반대로 2017년처럼 인상 사이클로 전환되면 기준금리 대비 90bp 높은 3.4%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지금은 내년 높은 성장률 전망이 기저효과가 크고, 추가적인 상향 조정도 상반기 중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인상 전 환보다 인하 재개에 무게를 두고, 2026년 한국 국고채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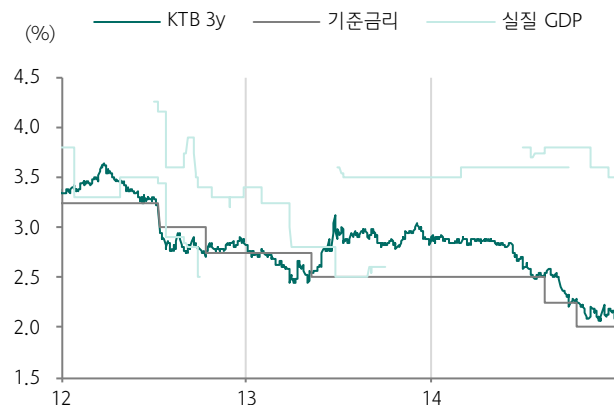
도표 1. 한국 3년물 금리 및 실질 GDP 성장을 컨센서스
: 금리는 성장을 컨센서스와 같은 방향. 단, 금리가 선행

회색 점선은 인플레이션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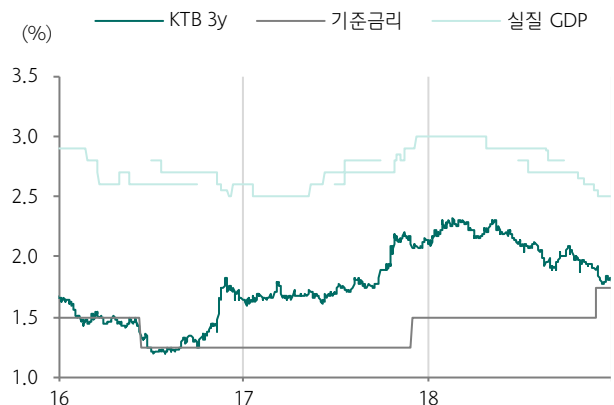
주: 성장률 컨센서스는 직전 해 7월부터 당해 9월까지 표기(2025년 컨센서스를 2024년 7월 ~ 2025년 9월까지 표기). 이하 동일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 [2013~2014년] 금리가 반락한 사례
: 2013년 대비 2014년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나, 이후 추가 상향 주춤
: 기준금리 인하 재개 기대로 3년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약 +0bp 까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2016~2017년] 금리가 추가로 상승한 사례
: 성장률 전망이 기저 효과 없이 꾸준히 개선
: 인상 전환 우려에 3년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약 +100bp까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5년 12월 30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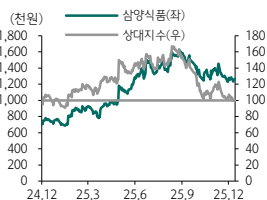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800,000원
현재주가(12.29) 1,266,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4,220.56
52주 최고/최저(원)	1,630,000/684,000
시가총액(십억원)	9,536.8
시가총액비중(%)	0.27
발행주식수(천주)	7,533.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7.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7.0
외국인지분율(%)	17.66
주요주주 지분율(%)	
삼양푸드스퀘어 외 6인	44.98
국민연금공단	9.58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378.7	2,988.9
영업이익(십억원)	535.3	708.8
순이익(십억원)	413.5	555.8
EPS(원)	54,786	73,320
BPS(원)	157,978	225,943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192.9	1,728.0	2,342.2	2,833.7
영업이익	147.5	344.6	530.3	692.0
세전이익	156.3	351.6	520.4	685.2
순이익	126.3	272.0	402.8	523.5
EPS	16,761	36,106	53,467	69,490
증감율	58.23	115.42	48.08	29.97
PER	12.89	21.19	23.06	17.74
PBR	2.85	7.00	7.73	5.46
EV/EBITDA	9.69	14.87	15.30	11.35
ROE	24.81	39.37	40.04	36.25
BPS	75,884	109,340	159,525	225,714
DPS	2,100	3,300	3,300	3,3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삼양식품(003230)

단기 조정은 기회

단기 실적 우려로 최근 주가 하락

관세청에 따르면, 10~11월 누계 삼양식품 수출액은 YoY 10.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월만 보면, 전년동월대비 7.6% 증가, MoM -2.9% 감소했다. 특히 미주가 YoY -8.9%, MoM -11.6% 감소하면서 단기 실적 우려가 다시 부각되었다. 10월 길었던 명절 연휴 기인한 단기 생산 부침이 불가피 했었을 것이다. 다만, 미국 판매 법인 설립 이후 연결 실적 및 관세청 수출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법인 재고 및 Sell-out 동향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측에 의하면 미주 판매는 가격 저항 없이(11월 판가 인상) 유의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글 트렌드도 견조하게 유지 중인 만큼, 밀양 2공장 가동을 상속에 따른 글로벌 판매 확대 흐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4Q25 Pre: 신제품 마케팅 비용 반영 예상

4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281억원(YoY 31.2%), 1,453억원(YoY 66.3%, OPM 23.1%)으로 추정한다. 수출 QoQ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매출도 신제품 '우지 라면'이 월 40억원 내외 기여하면서 YoY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관련 마케팅 및 글로벌 브랜드 강화 비용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을 기회로

밀양 2공장은 12월부터 용기면 포함한 6개 라인 모두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Capa 확장을 기반으로 2026년 해외 매출액은 각각 YoY 30.1% 증가한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상대적으로 ASP가 높은 해외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증가를 빠르게 상쇄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영업마진은 한 단계 더 Level-up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18배에 거래 중이다. 중장기 방향성 감안시 BUY&Hold 전략을 유지한다.

2025년 12월 30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340,000원(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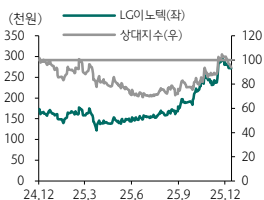
현재주가(12.29) 271,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4,220.56
52주 최고/최저(원)	294,500/122,000
시가총액(십억원)	6,425.6
시가총액비중(%)	0.18
발행주식수(천주)	23,667.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2.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1.5
외국인지분율(%)	29.23
주요주주 지분율(%)	
LG전자 외 1인	40.79
국민연금공단	10.1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1,840.4	23,023.4
영업이익(십억원)	696.0	840.5
순이익(십억원)	465.9	602.8
EPS(원)	19,687	25,468
BPS(원)	242,935	265,917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0,605.3	21,200.8	21,794.0	22,208.4
영업이익	830.8	706.0	739.1	843.0
세전이익	639.3	588.8	612.1	702.8
순이익	565.2	449.3	480.5	548.9
EPS	23,881	18,983	20,303	23,191
증감율	(42.32)	(20.51)	6.95	14.22
PER	10.03	8.53	13.42	11.75
PBR	1.20	0.72	1.12	1.03
EV/EBITDA	3.75	2.62	3.89	3.46
ROE	12.59	8.92	8.65	9.13
BPS	199,217	226,229	243,440	264,540
DPS	2,610	2,090	2,090	2,09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LG이노텍 (011070)**비모바일 영역 확대로 Set 우려 상쇄****4Q25 Preview: 본업 호조와 환율 효과로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조정**

25년 4분기 매출 7조 5,071억원(YoY +13%, QoQ 40%), 영업이익 3,988억원(YoY +61%, QoQ +96%, OPM 5.3%)를 기록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30% 이상 상향조정했는데 환율 효과 및 북미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주된 요인이다. 광학 부문은 북미 스마트폰 고객사의 9~10월 신모델 판매량이 전년대비 20% 증가했으며 Pro 및 Pro Max 비중도 전작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Set 업체의 보수적인 평가 정책이 교체 수요를 자극하며 중국, 미국 등 주요 지역에서 판매량 호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판부문은 디스플레이용 기판의 경우 상반기 이후 재고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패키지 기판의 경우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 및 스펙 상향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FCBGA는 PC용 칩셋향 공급이 본격화되며 적자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장 부문은 전방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성 제품 중심으로 믹스 개선을 통해 안정적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

2026 Preview: 기판과 전장 성장에 주목

26년 매출 22조 1,956억원(YoY +2%), 영업이익 8,430억원(YoY +14%, OPM 3.8%)을 기록할 전망이다. 26년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원가 상승에 따른 Set 수요 역성장에 대한 우려 존재하나 고객사 내 점유율 안정화 및 카메라 모듈 스펙 업그레이드(가변 조리개)에 따른 ASP 상승 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판소재 부문의 경우 26년 메모리 패키지기판 공급이 시작되고 PC 칩셋향 FCBGA 공급 확대로 실적 개선세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FCBGA의 경우 PC CPU향 FCBGA 신규 공급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FCBGA의 적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장부품 부문 또한 고수익성 제품 중심의 수주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AP 모듈, 디지털 키 등 신사업 본격화가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목표주가 34만원으로 상향

LG이노텍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4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6년 예상 BPS에 20~25년 PBR 밴드 평균을 적용해 산출했다. 북미 모바일 신모델 판매량 호조가 장기화되며 단기 실적이 양호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비모바일 매출 비중 확대로 중장기 성장동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26년 휴머노이드 로봇향 카메라 모듈 공급이 가시화되며 추가적인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12월 30일 | 기업분석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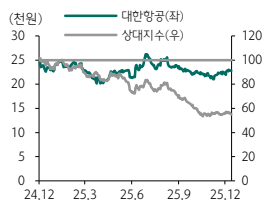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28,000원
현재주가(12.29) 22,8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4,220.56
52주 최고/최저(원)	26,250/20,150
시가총액(십억원)	8,395.4
시가총액비중(%)	0.24
발행주식수(천주)	368,220.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92.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8.8
외국인지분율(%)	15.73
주요주주 지분율(%)	
한진칼 외 28 인	27.06
국민연금공단	9.01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4,881.3	24,642.0
영업이익(십억원)	1,401.2	1,621.0
순이익(십억원)	990.9	1,034.9
EPS(원)	2,708	2,710
BPS(원)	30,135	32,419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6,111.8	17,870.7	25,278.1	25,731.0
영업이익	1,790.1	2,110.2	1,268.6	1,176.4
세전이익	1,575.7	1,836.2	1,151.9	840.6
순이익	1,061.2	1,317.3	744.2	542.9
EPS	2,873	3,567	2,015	1,470
증감율	(40.12)	24.16	(43.51)	(27.05)
PER	8.32	6.34	11.32	15.51
PBR	0.93	0.80	0.77	0.75
EV/EBITDA	3.94	5.48	6.08	6.11
ROE	11.46	13.17	6.95	4.90
BPS	25,793	28,356	29,621	30,341
DPS	750	750	750	75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대한항공 (003490)**4Q25 Pre: 환율이 내려오면 대한항공을 보자****4분기 별도 영업이익 4,055억원 전망**

(별도 기준) 대한항공의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7% (YoY) 증가한 4조 3,150억원, 영업이익은 7% 감소한 4,055억원(영업이익률 9.4%)으로 전망한다. 여객 매출액은 10월 추석 연휴 효과가 이어지며 6% (YoY) 증가한 2조 5,080억원으로 전망한다. 중국/일본 노선 수요가 양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4분기 국제선 운임은 2% (YoY) 상승한 122원/km로 추정한다. 화물사업부는 4분기 연말 특수를 맞아 매출액은 6% (YoY) 증가한 1조 2,760억원, 운임은 4% 상승한 560원/km로 추정한다. 반면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가상각비가 26% 증가할 전망이고, 연료비도 높아진 환율 영향으로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 증가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4분기는 여객보다는 화물 사업부의 성장이 전체 수익성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6년의 기대: 1)통합 완료 이후의 프리미엄 전략, 2)항공우주 사업부

2026년 대한항공에게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획대로 대한항공의 통합이 원만하게 마무리 된다면, 대한항공은 프리미엄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객이 경험의 시대가 된 지금에서 필수적인 전략 변화이고, 대한항공의 P 상승과 환율수요 흡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우주 사업부도 또 하나의 성장축이다. 2026년부터는 저피탐 무인기/UH-60 성능개량/전자전기 등의 신규 수주로 전년 대비 항공우주 매출액이 30% (YoY) 증가하며 연간 8,500억원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2026년은 매출액 증가율(+5%)보다는 비용 증가율(+6%)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7% (YoY) 감소한 1.42조원으로 예상된다.

환율 하락은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

달러/원 환율이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주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대한항공의 비용의 50% 이상이 달러에 연동되어 있고, 환율 상승시 영업외 환산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환율 10원 변동시 약 480억원의 외화평가손익 발생) 눌러있던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는 충분히 작용 가능하다. 별도 기준 2026년 당기순이익은 1조 520억원으로 추정된다. 2026년 별도 EPS는 25,716원, 별도 BPS는 29,545원으로 목표 밸류에이션(P/E 9배, P/B 1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 28,000원,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2025년 12월 30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유틸리티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2025년 12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인하폭이 축소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6년 2월 말까지 기존 대비 2개월이 추가로 연장되었지만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하가 종료된다. 원유, 유연탄, LNG 등 주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현재 15% 인하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과거 수준으로 환원된다.

2026년부터 유연탄 10원/kg, LNG 1.8원/kg 상승

개별소비세는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2014년부터 평균 36원/kg이 부과되었으나 2019년 4월부터 46원/kg으로 10원 인상되었고 LNG는 기존 60원/kg에서 12원/kg으로 크게 낮아진 바 있다. 2022년 8월부터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15%가 추가로 인하되었다. 2022년 12월까지 5개월 동안만 시행 예정이던 정책이지만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다. 주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당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일종의 전기요금 관련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인하 세율 환원 조치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39.1원/kg에서 46원/kg으로 10원/kg, 발전용 LNG는 10.2원/kg에서 12원/kg으로 1.8원/kg 인상된다. 발전용 LNG의 경우 인상폭이 크지 않아 한국가스공사와 직도입사들의 2024년 발전용 LNG 수입량을 고려할 때 약 400억원 가량의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발전용 유연탄은 4천억원대 중후반 가량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용 유연탄은 2024년 기준 발전자회사 사용량이 약 5,700만톤 가량이고 민간도 유연탄 발전량 기준으로 역산할 경우 최소 1,000만톤 이상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기준 1원/kWh 미만 영향. 다만 다른 정책비용들은 꾸준히 누적

한국전력의 연간 전력판매량이 550TWh 가량인 부분을 감안하면 개별소비세 환원에 따른 비용 증분을 요금으로 환산할 때 1원/kWh 미만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유연탄 발전소 노후 설비 폐지 등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은 시간을 두고 점차 완화될 예정이며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만으로도 개별소비세 인상 영향을 흡수할 수 있다. 한편 2026년부터 가격 회복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연료비단가 상승 부담, 제도 존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RPS 의무비율 등 정책 비용들이 누적되는 가운데 나타난 개별소비세 인상이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 요금 전가 시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11월 ESS Battery : BTM 성장세 지속

2025년 11월 ESS Data in detail | 2025.12.30



투자 의견

Neutral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지역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지역	Grid		BTM		Total		누적 (1-11월)	Grid		BTM		Total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11월	글로벌	14.1	-28.6	6.1	58.7	20.2	-14.2		173.6	30.4	61.5	58.2	235.1	36.7
	미국	0.9	-51.6	0.8	47.2	1.8	-29.6		42.3	28.8	9.5	47.2	51.7	31.8
	유럽	0.3	-64.2	1.4	22.3	1.7	-13.7		8.5	19.7	13	22.3	21.5	21.3
	중국	10.3	-34.9	2.3	97.6	12.5	-25.9		96.7	14.1	21	97.6	117.7	23.4
	기타	2.6	120.9	1.7	61.2	4.2	92.9		26.2	211.1	18	61.1	44.2	125.5

자료: Rho Motion, 하나증권

주1) BTM(Behind The Meter) : 전력량계를 기준으로 고객 측에 위치한 분산 에너지 자원, 가정, 건물, 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건물이나 시설 내의 태양광 패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이 해당. 발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회사가 관리하는 FTM(Front The Meter)과 대비되는 개념

전력망(Grid) 시장 내 연계 유형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연계 유형	설치량(GWh)		YoY(%)	누적 (1-11월)	설치량(GWh)		YoY(%)
11월	Grid		9.5	-37.7			112.9	40.4
	Wind+Solar		1.2	7.1			12.6	205.6
	Wind		0.1	-87.2			9.6	-5.6
	Solar		3.2	29.1			36.2	-3.7
	기타		0.1	N/A			2.4	319.3

자료: Rho Motion, 하나증권

글로벌 11월 ESS 케미스트리별 신규 설치 비중

케미스트리 • 11월 글로벌 ESS 케미스트리별 비중은 LFP 90.6%(MoM +4.3%p), NCM 3.4%(MoM -0.1%p), Flow Battery 2.1%(MoM -4.5%p), Sodium based 0.6%(MoM -0.0%p), 기타 3.4%(MoM +0.4%p)

시사점 및 의견: 견조한 ESS 수요

- 11월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Grid+BTM)은 20.2GWh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월별 변동성이 큰 비즈니스 특성상 누적 추이가 중요한데, 1~11월 누적 기준 설치량은 235.1GWh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및 AI 데이터센터 증가 힘입어 수요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 신규 설치량 중 70%를 차지하는 전력망(Grid) 시장의 경우, 11월에 14.1GWh(YoY -29%)의 ESS가 신규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173.6GWh가 신규 설치돼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1월 신규 설치량은 미국 -52%, 유럽 -64%, 중국 -35%로 모두 감소했다. 다만, 누적 기준으로는 미국 +29%, 유럽 +20%, 중국 +14%로 세 지역 모두 성장세 유지하고 있다.
- 설치량 중 30%를 차지하는 BTM(Behind The Meter) 시장에서는 11월에 글로벌 6.1GWh(YoY +59%)의 ESS가 신규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61.5GWh가 설치돼 +58% 증가했다. 모든 지역(미국, 유럽, 중국, 기타)에서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각각 +47%, +22%, +98%, +61%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누적 기준으로도 성장세 지속됐다.
- Grid 연계 유형별 설치량을 보면, 송전망에 직접 연결돼 전력 상황에 따라 충·방전을 하는 독립형 BESS(Stand-alone BESS) 수요는 11월 YoY -38% 감소했으나, 누적 기준 +40% 증가했다. 11월 기준 풍력 연계와 태양광 연계 ESS 설치량은 각각 -87% 감소, +29% 증가했고, 11월 누적 기준으로는 각각 -6%, -4%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풍력+태양광) ESS 설치량은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 풍력+태양광+하이브리드를 합친 ESS 설치량은 11월 누적 기준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 11월 ESS 신규 설치량 중 LFP는 91%, NCM은 3%를 차지했다. 장수명과 안전성, 원가 경쟁력이 요구되는 ESS 시장에서 LFP의 과점 구도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 한편, 12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력망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을 현재 약 23%에서 2030년 32%로 확대한다는 2025년 2월 말 목표를 재확인했다(2040년 50% 목표). 이를 위해 EU는 회원국 간 프로젝트 비용을 분담하고, 전력·저장·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사막-건조 지역(신장·내몽골 등)에 초대형 태양광·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 전력을 초고압 송전망(UHV) 통해 주요 수요지(공업단지, 대도시권)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정책 기조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며 ESS 수요 역시 지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2/29	117,000	119,500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하나금융지주 (086790.KS)	12/29	93,800	94,900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주주친화적인 은행. 비은행 실적도 다소 개선 환율 우려가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 환율 하향안정화시 반등 속도 빠를 것으로 기대
삼성전기 (009150.KS)	12/29	259,000	257,500	-0.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프넨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KT (030200.KS)	12/29	53,400	53,000	-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킹 관련 비용, 향후 실적 추정치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 기대 배당수익률, 세전 7.5%, 배당금 2천만원 이하 세후 6.3%로 매력적인 수준
대한항공 (003490.KS)	12/29	22,850	22,800	-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아시아나항공 합병 절차 완료로 장거리 노선 독점, 단거리 노선 과점적 지위 확보 환율 안정에 따른 투심 개선. PBR 0.7배로 밸류에이션 매력
금호석유화학 (011780.KS)	12/29	122,600	121,100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석유화학 시장에서 부타디엔과 MDI 가격 동반 강세 보이며 업황 개선 시그널 확인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및 지분법 이익(금호미쓰이화학) 기대
풍산 (103140.KS)	12/29	105,800	111,800	5.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5mm Capa 증설 (연 10만→20~25만발), 풍산 FMS 신관 증설 (연 9만→60만개) 기대 구리 가격의 견고한 흐름이 지속되며 신동 사업의 안정적 실적 기대
알테오젠 (196170.KQ)	12/29	439,000	455,000	3.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하주사 전환에 대한 니즈가 투약 편의성 개선, 바이오시밀러 방어의 이유로 증가 중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유입 전망, 공장 증설에 따른 제품 수익 증가 기대
현대무비스 (319400.KQ)	12/29	19,260	20,350	5.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사업 확장 및 유지보수 매출 확대로 점진적 수익성 개선 전망 국내 기업향 에너지저장장치, 화장품, 가전 관련 물류 자동화 수주 기대
가온칩스 (399720.KQ)	12/29	55,000	52,200	-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DSP 업체들 전반에서 신규 수주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업황 회복 가시성 상승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래퍼런스를 보유한 만큼 향후 신규 수주 모멘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04%	-1.16%p	+73.74%	+14.9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12/22	1,733,000	1,706,000	-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수주 기반으로 5공장 안정적인 ramp-up, 내년 1분기 초 6공장 증설 계획 발표 예상 1월 12~15일 개최되는 JPM healthcare에서 향후 사업전망 main track에서 발표 예정
아이에스동서 (010780.KS)	12/15	22,600	23,400	3.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4월, 3.5조원의 초대형 자체 사업 3,443세대의 경산 중산지구 분양 결정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한국단자 (025540.KS)	12/8	66,700	67,100	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 하반기 미국법인 회복 및 유럽법인 호실적 지속 전망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2/1	15,110	15,150	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600M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촉구에 주목, 2026년 대규모 투자 기대 중국 부품 제재 강화, 오픈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 양호한 흐름 지속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1/17	105,200	96,300	-8.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SK하이닉스 (000660.KS)	10/20	465,500	640,000	37.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0/13	210,500	257,500	2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프 (352820.KS)	10/13	272,500	320,000	17.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BTS, 내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0/1	83,900	119,500	4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10/1	115,500	125,600	8.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여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25년 총주주환원 규모 총 3.01조원으로 총주주환원을 약 53% 수준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0/1	145,000	167,900	15.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
S-Oil (010950.KS)	10/1	62,400	81,300	3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3.84%	-7.94%p	+59.99%	+1.2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4,805	2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비된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590	3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5,540	18.94%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6,585	7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49.14	365.86	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5.99	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PAVE (미국 인프라 주식)	2025.11.124	38.07	49.26	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16.69	1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장성과 밸리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28	12.29	12.30	12.31	1.1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1월 광공업생산 (E --, 10월 -8.1%) 미국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E --, 9월 0.0%) 미국 10월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 (E 0.1%, 9월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2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11월 2.4%/2.0%) 중국 12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E --, 11월 49.2P) 중국 12월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PMI (E --, 11월 4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2월 수출/입 (E --/--, 11월 8.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12월 HCOB 제조업 PMI F (E 49.2P, 11월 49.6P) 	
1.4	1.5	1.6	1.7	1.8	1.9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12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F (E --, 11월 49.7p) 중국 12월 레이팅독 종합 PMI (E --, 11월 51.2p) 중국 12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 11월 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12월 ISM 제조업 PMI (E 48.4p, 11월 48.2p) 미국 12월 ISM 구매물가지수 (E --, 11월 58.5p) 일본 12월 전년대비 분원 통화 (E --, 11월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12월 ADP 취업자 변동 (E 5.5만건, 11월 -3.2만건) 미국 주간 전주대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E --, -5.00%) 유로 12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CPI (E --/--, 11월 2.10%, -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전주 --) 미국 10월 전월대비 내구재 주문 F (E --, 9월 -2.20%) 미국 10월 전월대비 제조업수주 (E -1.00%, 9월 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E 6만건, 11월 6.4만건) 중국 12월 전년대비 CPI (E --, 11월 0.70%) 중국 12월 전년대비 PPI (E --, 11월 -2.20%)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